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 주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for social work practice to enhance the happiness of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formal and informal support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life married couples. Subject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mong married men and women aged between 40 and 59 and living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study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family stress was 3.06 points (SD=.56),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of 3 points. Of all subscales of family stress, the subjects experienced the most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s, followed by financial problems, health and loss of families,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In regard to social support resources, the mean value of all social support resources categories was greater than the median. Among the subscales, informal support (family support and support from other people) was found to be higher than formal support. The level of marital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박주희(pjh@sungshin.ac.kr)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median, and the score was 3.21 points (SD=.78). Second, in order to explore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were analyzed by grouping subjects who scored high, middle, and low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marit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that experienced less family stress ($F=6.25, p<.01$). With respect to soci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that received high social support ($F=29.68, p<.001$).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subjective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stress, economic stress, and family suppor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higher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the lower the family relationship stress and economic stress levels,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In addition, the greater the family support,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 the need to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and to distribut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family support resources. For example,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s are currently performed, including “Family School for Middle-Aged Baby Boomers” and others as part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Work regarding the promotion of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In addition, continuing effort is warranted to include content on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resources,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promoting service accessibility.

Key Words : 중년기 기혼남녀(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가족스트레스(family life stress), 사회적 지지 자원(social support resources), 결혼생활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오늘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은 결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획득, 자녀출산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덕률과 사회규범을 강조했던 바에 비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배우자간의 애정, 동료애, 자아성장 등 배우자간의 적응과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적 결혼에서 정서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시 되는 것

과 함께 중년기는 생애 발달주기적으로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등의 부담과 가족 및 사회관계로부터 오는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기개발연구원 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37조원으로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차지하였다. 노인부양 부담의 경우 201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9.9%를 차지하

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 노인 빈곤율은 제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노화로 인해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크게 감퇴 및 저하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가해 성인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년기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직업적 성취도와 생산성은 최고조에 이르지만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직업적 전환에 대해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남녀는 노부모부양의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 및 직업의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결혼생활의 질적 경험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년세대의 이혼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이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이혼의 추세 중 중년층 나이의 부부들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한 부부는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의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행동과 태도에서 다양하고 실제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부부는 사랑이외의 다른 사회적·심리적 요인들이 결혼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혼생활의 만족은 가족기능의 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일차적 요소이다. 이에,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결혼생활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신현주·전귀연, 2008). 즉 중년기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입전락을 마련하는 것은 가족복지의 실천적 측면에서 핵심과제이다.

이와 같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층의 다양한 특성과 그로 인한 위기를 고려해 볼 때 그동안의 결혼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는 부부간 상호작용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요인을 편향적으로 살펴본 경향이 있다.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성만족도, 가사분담과 같은 배우자의 상호작용 특성(조혜선, 2003; 김미령, 2009),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배우자간의 갈등대처 방식(박성호, 2001; 고재홍·박영화, 2005)과 원가족과의 상호작용(황중귀, 2009; 조성희·박소영, 2010)등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결혼만족은 개인이 삶 전체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Glenn & Weaver, 1981)으로, 부부의 결혼내적체계와 외적체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adbury et al., 2000). 즉 중년기 부부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적 자원들 즉,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를 해 주거나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전문가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와 전문가적 개입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 중의 하나이다(박윤숙·윤인진, 2007).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개인의 일상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한명숙, 2001). 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결혼관계의 배우

자 간의 내적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선, 2008).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특히 배우자 지지 자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지 자원의 유용성을 규명하였다. 즉,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당한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가 낮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최애선, 2001). 또한 배우자 지지는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게하고 결혼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순정, 2008).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결핍될 경우 부부는 생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게 되고(김리진·윤종희, 2000; 문혁준, 2004), 결혼생활만족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측케 한다. 정옥희(2011)는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지지 자원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혼부부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학문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현대가족은 가족 및 결혼생활의 문제를 가족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의 개입 등의 공식적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가족문제의 예방과 가족문제의 해결 치료를 위한 교육과 상담 및 치료 개입을 통해 결혼생활의 증진을 돕는 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자원의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해 보고자하며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자원 중 가족 지지 자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제한 점을 고려해서 비

공식적 가족지지 자원 뿐만 아니라 공식적 사회적 지지 자원이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을 증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원을 공식적 지지 자원인 전문가 집단의 도움 제공에 대한 인식과 비공식적 지지 자원인 가족, 친척 및 이웃의 도움 제공 등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가 사회적 차원 및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중년기 개념 및 발달적 특성

1) 중년기의 경험

‘중년’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처음 등재된 것이 1895년이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립된 1920년까지는 ‘중년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년의 생애 주기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두했다(한겨레신문, 2014.4.7). 중년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최초로 발달시킨 Jung은 중년기를 40세 전후를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정적 전환기로 보고 중년기성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학문적으로 제시하였다(김명자, 1989). 중년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Staudinger와 Bluck(2001)은 중년기를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애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중년전기(early-midlife:40-49세)와 중년후기(late-midlife:50-60세)로 구분하였다(강정희·설연옥, 2012). 김재은(1983)은 40-60세, 김남순(1986)과 김명자(1989)은 40-59세를 각각 중년기로 제시하였다. Borland(1978)은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연령과는 상관없이 막내자녀의 독립으로부터 은퇴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

고 진수기, 빈둥지시기, 탈부모기 등으로 언급하였다(황인성, 1998). 이상의 중년기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많은 학자들인 공통적으로 분류한 40~59세를 중년기로 규정하여 살펴보겠다.

2) 중년기의 발달적 특징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본질적 자아성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애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이며, 중년기는 결혼과 직업을 통하여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유정, 2009). 이 밖에 중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는 성숙된 성인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확고한 인격을 정립하고 생의 목표와 가치관 등을 확립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젊음과 노화를 통합하면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이영주, 2010). Erickson(1994)은 중년기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 단계에서 건강한 성인이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을 생산성(generativity)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이란 자녀 양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입시키며,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생산적 시기를 보내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 침체되기 쉬우며, 다

음 단계인 노년기에서 성공적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년기 발달과업의 특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중년기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및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1)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가족스트레스의 개념은 스트레스의 정의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에서 유래된 말로, '팽팽하게 죄다' 또는 '단단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으로 14세기에 이르러 stress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양병환, 1999).

그 동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보면 크게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점과 반응으로 보는 반응관점 그리고 상호역동적인 작용으로 보는 상호작용 관점으로 구분한다(최형성, 2002). 첫째, 자극으로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을 포함하는 입장이다. Folkman과 Lazarus(1984)는 실패 또는 실패에 대한 위협의 환경에서 오는 불유쾌한 대상들, 고립감, 죽음의 경험, 사회 변화 등을 스트레스 자극으로 보았다. 둘째, 반응접근은 주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반응 또는 반응 군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상호작용적 접근으로 위 두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관계론적 입장이 대두되었다.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근원을 심리적 과정에 두며, 환경 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호작용적인 관점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스트레스 역동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함으

로써 인지-행동적 상담 및 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우울, 초조감,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즐거움, 흥분과 같은 반응까지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을 스트레스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존감과 복지 등을 위협하는 일종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보호하도록 한다(정현숙, 1999).

한편,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사건 변동과 가족병리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정신병리 형태나 원인을 환자의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가족상황, 상호작용 패턴, 사회적 역할, 가족의 가치관, 관습 등의 역동적 관계 가운데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정민자, 1983). Boss(1988)는 가족스트레스를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압력이며,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과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이라고 하였다(강인, 1990).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가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일지라고 그것은 결국 다른 가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다(전영자, 1992). Hill의 ABC-X모델에서 가족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유발인자 또는 생활사건(A), 중재인자 즉 대처기술이자 자원(B),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의해 부과된 요구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C), 스트레스, 위기, 긴장을 의미하는 결과(X)라는 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양옥남, 1995). 이 관점은 많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부부일수록 부정적인 결혼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스트레스 영향은 부부의 스트레스 사건에 내리는 정의와 부

부의 자원 수준에 의해 중재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지혜정, 2003).

2)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는 자녀 돌봄과 부모부의 양의 가족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문제, 상실의 문제 등 주로 중년기 발달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연구되었다(김명자, 1991; 신혜섭, 2006). 김미혜(2006)와 오명자(2007)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은 가사노동 문제와 관련된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길(2001)은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도 40대 남성의 80%가 정서적 갈등, 실망감을 포함한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주연, 1995). 경제적 측면에서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크며 중년기의 경제적 안정감은 중년의 심리, 정서적 안녕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은 중년기 가족의 개별 가계에게 경제적 위협을 주며 중년기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박주희, 2014). 박미연(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자금을 빌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밝혀졌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령기가 끝난 이후에 노후 준비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조경진, 201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가족생활스트레스는 기혼부부의 공통적 특성을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포함한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및 가족상실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겠다.

3.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념 및 유형

1)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Sarason et.al, 1983).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까지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대인관계로부터 개인이 지각한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정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지지,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 평가), 정보적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보면,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개념차원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 자원의 수준과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지지 자원의 수준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했다. 김연숙과 김지미(2001)는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며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사회 심리적 자산, 지지체계, 관계 제공 등의 여러 형태의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

원을 공식적(formal) 혹은 비공식적(informal) 개념으로써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사회사업가, 상담사, 의료인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를 의미하고, 비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친척, 친구, 이웃, 종교적 단체 등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기회를 의미한다(Dunst, Trivette와 Deal, 1988). 사회적 지지를 또한 수혜적(received social support)으로 받는 지지와 누군가로부터 사랑, 동감을 받고 있고 있다는 인식적(perceived) 지지로 나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지적 지지는 심리학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이처럼 사회적지지 자원의 영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체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로 구분한다. Dunst, Trivette, & Deal(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상담가 등의 가족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의 정도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가족,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기회의 정도로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자원과 중년기 적응 관련 영향

중년기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중년기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주제로 하여 탐구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년기의 심리-정서적 복지와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ovey, 2000; Cobb, Davila, & Bradbury, 2001). 전찬례(2006)는 종교적 영성 참여의 기회를 사회적 지지의 한 요인으로 보고 동일한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개인들에게 종교적 영성 참여의 기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이외에도 Park, Choo와 Moon(2010)은 중년기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중년기 성인의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박봉길과 전석균(2006)은 35세-55세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절효과로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위기감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완충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영과 이영희(2010)는 중년성인의 우울감과 무력감을 사회적 지지의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중년기의 우울과 무력은 사회적 지지와 강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중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4. 결혼생활만족도 개념 및 관련 영향 요인들

1) 결혼생활만족도의 개념

결혼 만족도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결혼 만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으로 개인이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에서 일치정도로 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반응으로 설명하여 자신의 결혼에 대한 즐거움·만족·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Spanier(1976)는 결혼만족도란 개인의 욕구가 남편,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를 말하는데 기대와 수행 간에 항상 차이가 존재하여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성공(marital success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효민, 2010).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결혼생활만족도 관련 영향 요인들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원과 통제변인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은과 이영희(2000)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특히 남편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과 전춘애(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생활만족도가 부적 상관이 있고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경험은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Housekencht과 Macke, 1981; Barnett, Club, et al., 2006). 미국의 전문직 여성의 결혼생활의 적응을 연구한 Housekencht & Macke(1981)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돌봄의 부담이 클수록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결국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에너지의 소진과 스트레스는 결혼생활로 전이되어 결혼생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과라고 본다. Barnett(2008)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의 제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부부들이 자녀양육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적응

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lub(2006)은 청소년기 자녀의 출산으로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는 미국의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을 만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중년기 여성들의 자녀 돌봄의 업무가 가중될수록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지현과 김태현(2011)는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혔다. 유상미(200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다양한 국면의 문제해결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결혼생활의 질적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성, 노화 진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 가족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나 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자원

우리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사회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중요시 된다(오가실·박용주·오경옥·김정아·이숙자·김희순·정추자, 1999). 현경자(2004)는 한국인의 행복을 주로 타인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보람, 희망,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제시하고 가족 및 배우자, 자녀 등 의미 있는 타인들이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에 주목한 연구들을 보면, Cutrona(1996)는 배우자 지지는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Rosen, Meyers와 Hattie(2004)는 배우자의 충성심과 가치공유 등의 지지자원은 결혼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리진과 윤중희(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취업여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크게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남편의 지지도는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박신아(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들이 풍부한 자원을 직장에서 받는 반면 가정에서는 가사분담에 따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여 가정생활에서 더 갈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2015)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배우자지지 자원은 취업모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밖에 최연배(2003)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장온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만이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친구나 이웃, 사회기관의 지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지지 자원은 결혼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적지지 자원의 내용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3)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결혼생활주기,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2000; 허미화, 2004). 교육수준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최문임(2007)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허미화(2004)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현대 부부들의 경우 생애주기적으로 결혼생활의 만족이 U자형의 커브를 그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urr, 1970; Rollins & Feldmann, 1970). 즉, 20대에 해당하는 결혼 초기나 50대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30~4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계숙과 그 동료들(2012)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형성, 부부관계 확립, 가족에서의 역할 분담 및 경제적 여건 확보 등 가족형성 초반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들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인 수준은 결혼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Norton, 1983; Larson, Richards & Perry-Jenkins, 1994). 한편 경제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홍숙선(2001)은 경제적 수입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이호신(2000)도 경제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결혼 만족도에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또한 말레시아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인구학적 요인을 연구한 Zainah와 그 동료들(2012)은 가족의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혔다.

건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이경주,199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부부의 가족스

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보고 결혼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라 결혼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 구성

1) 독립변수

(1) 가족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의 71문항을 중년기 가족스트레스로 변환 사용한 박지현(2009)의 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인 중년 기혼부부에 맞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8문항, 경제문제 4문항, 건강 및 가족상실감 2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영역은 ‘자녀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줄어서 걱정이 된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괴롭다’, ‘가족 모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자녀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걱정 된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경조사(결혼, 회갑, 제사 등)가 많아 부담스럽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괜히 오해를 받아 힘들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안타깝다', 경제영역은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아 부담스럽다', '값아야 할 빚이 있어 걱정 된다',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의복, 교통비 등)이 많아 부담스럽다', '소득이 적어서 가족생활 유지하기가 힘들다', 건강 및 가족상실감 영역에는 '가족들이 다치거나 많이 아픈 적이 있어 힘들다',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 허탈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스트레스 전체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에서는 가족생활영역은 Cronbach $\alpha = .73$, 경제문제영역은 Cronbach $\alpha = .72$, 상실영역은 .78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자원

중년기 기혼남녀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비공식적지지 자원인 가족지지와 타인의 지지 자원으로 측정하고 이를 위해 신기영(1991)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정선화(2012)의 1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공식적지지 자원은 장운정(2007)이 사용한 도구에서 2개의 문항을 본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하여 2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정서적·물질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는 지원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 기혼남녀가 가족 및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지지 자원의 활용정도와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터 받는 공식적지지 자원의 활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 자원의 비공식적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 자원 7문항과 중요한 타인의지지 자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개 문항으로 하

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가족지지 영역으로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알고 있고 잘 대해준다',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면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매우 친하게 지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족과 상의 한다', '우리 가족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모두가 참석한다', 타인지지 영역에는 '속상할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가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시간이 날 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함께 한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외부의 사회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에는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가나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 줄 전문 상담가나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척도의 전체신뢰도 .87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비공식적 지지는 Cronbach $\alpha = .92$, 타인의 지지는 Cronbach $\alpha = .86$, 공식적 지지는 Cronbach $\alpha = .70$ 으로 나타났다.

2)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응답자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다.

3) 종속변수: 결혼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결혼생활만족도의 단축척도인

Schumm, Jurich와 Bollman(1981)이 개발한 Kansas 결혼만족도 척도(KMSS: Kansas Marital Satisfaction)를 수정하여 제작한 정현숙(1997)의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4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배우자의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 ‘자녀의 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하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9세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 1일~30일까지 예비 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설문자료로 263부가 활용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문항, 질문지 응답시의 반응 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완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사전 교육된 조사원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자 사전훈련에는 조사의 특성, 목적, 조사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자료수집 절차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자료수집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조사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성, 연령, 학력,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성이 54.2% 남성이 45.8%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53.7세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25.3%, 전문대졸 21.5%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

<표 1> 측정도구 및 신뢰도 계수

		변수	문항	신뢰도	
독립변수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8	.73	
		경제문계스트레스	4	.72	
		건강 및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2	.80	
		전체스트레스	14	.75	
	사회적 지지 자원	비공식적 지지 자원	가족지지	7	.92
			중요한 타인지지	6	.87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	.70	
	전체 사회적 지지 자원	9	.87		
종속변수	결혼생활만족도	4	.94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2) 연령(연속변수) 교육(1=고등졸, 2=전문대졸, 대졸, 3=대학원졸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1=하, 2=중, 3=상) 주관적 건강상태(1=하, 2=중, 3=상)	5			

‘중’은 34.2%로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상업서비스(자영업)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18.3%, 전문직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이라는 비율이 61.3%, ‘상’이 29.2%로 대체로 중상층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자원, 결혼생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120	45.8
	여성	143	54.2
연령	평균연령 : 53.7세		
학력	고졸	116	44.4
	전문대졸	56	21.5
	대졸	66	25.3
	대학원졸이상	23	8.8
종교	기독교	99	39.1
	불교	31	12.3
	천주교	45	17.8
	기타	14	5.5
	없음	64	25.3
주관적 건강상태	하	26	10.7
	중	83	34.2
	상	134	55.1
직업	무직	2	.8
	전업주부	48	18.3
	상업서비스(자영업)	78	29.7
	일반사무직	29	11.0
	관리직	21	7.9
	생산·단순노무직	31	11.8
	전문직	36	13.7
	기타	18	6.8
주관적 경제수준	하	24	9.5
	중	155	61.3
	상	74	29.2
계		263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활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자원 정도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수준

<연구문제1>인 중년기 성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결혼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표3>, 먼저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평균 3.11점(SD=.56)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9점(SD=.65),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0점(SD=.76),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요인 3.05점(SD=.91)의 순으로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

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자원의 전체 평균은 3.23점(SD=.77)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비공식적지지에서 가족지지 요인이 3.46점(SD=.91), 타인지지 3.51점(SD=.70)이었으며 공식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2.94점(SD=.68)으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3.21점(SD=.78)로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 남녀들이 가족관계로부터의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매우 큰 시기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유주연, 1995; 권한경, 2011), 경제문제의 스트레스 또한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은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호신, 2000; 홍숙선, 2001). 사회적지지 자원 측면에서는 결혼생활에서 여전히 비공식적 지지인 가족지지가 영향력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김리진·윤중희, 2000; Cutrona, 1996). 결혼생활만족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수준

		평균	표준편차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3.19	.65	
	경제문제 스트레스	3.10	.55	
	건강 및 상실 스트레스	3.05	.58	
	전체 가족스트레스	3.11	.56	
사회적 지지 자원	비공식적지지 자원	가족지지 자원	3.46	.91
		타인지지 자원	3.51	.70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94	.69	
	전체 사회적지지 자원	3.23	.77	
	결혼생활만족도	3.21	.78	

2.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독립변수들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상’과 ‘중’인 집단보다는 가족스트레스가 ‘하’인 집단의 결혼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5, p<.01$). 사회적지지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가 ‘하’인 집단 보다는 ‘중’인 집단에서 그리고 ‘중’인 집단보다는 ‘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68, p<.001$).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박성연·전춘애, 1996; 이정은·이영호, 2000; 박주희, 2015).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더욱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는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Cutrona, 1996; 김리진·윤종희, 2000).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이 중년기 시기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취약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한 다중공선성을 살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Durbin-Watson계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표 6>, 각각 1.73, 201, 2.03으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모델 1>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표 6>과 같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26.6%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beta=.33, p<.001$), 교육수준($\beta=.1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수준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은 사회경제변인, 가족스트레스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표 6>). 그 결과를 보면,

<표 4>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변수	결혼생활만족도
	M(SD)
가족스트레스	
상	3.10(.46) a
중	3.01(.50) a
하	3.42(.49) b
$F= 6.58^{**}$	
사회적 지지 자원	
상	3.51(.44) c
중	3.15(.43) b
하	2.73(.53) a
$F= 29.68^{***}$	

** $p<.01$, *** $p<.001$, a<b<c

〈표 5〉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1	12
1. 성별	1										
2. 연령	-.29**	1									
3. 교육	.05	.11	1								
4. 건강	-.08	.08	.29**	1							
5. 주관적생활수준	.08	.04	.10	.29**	1						
6. 가족관계스트레스	-.07	.18*	-.14*	.14*	-.15*	1					
7. 경제스트레스	-.06	.07	-.11	.06	-.21**	.51**	1				
8. 건강 및 상실스트레스	.06	.10	.02	.25**	.19*	.43**	.16*	1			
9. 가족지지자원	.22**	-.15*	.24**	.27**	.31**	-.32**	-.01	.10	1		
11. 타인지지자원	.21**	-.13*	.20**	.31**	.37**	-.38**	-.15*	-.14*	.63**	1	
12. 공식적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10	-.14*	-.01	-.06	.19*	-.04	.04	-.02	.39**	.38**	1

*p<.05, **p<.01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7.1%로 1단계에서 보다 10.5%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beta=.39, p<.01$), 가족관계 스트레스($\beta=-.16, p<.05$)의 2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 중 교육수준의 유의미성이 이 단계에서는 사라졌다.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은 2단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3>은 사회경제변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표 6>. 그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5.9%로 2단계에서 보다 8.8%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beta=.28, p<.01$), 가족지지($\beta=.25, p<.01$), 가족관계 스트레스($\beta=-.16, p<.05$), 경제문제 스트레스($\beta=-.14, p<.05$)의 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 자원 영역중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검증에서도 나타난 결과와 같이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매우 큰 시기라 사실과 중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결혼생활의 만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비공식적 가족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리진·윤종희, 2000; 박주희, 2015; Cutrona, 1996).

V. 결론 및 제언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세대로서 두 세대에게 정서적·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 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

〈표 6〉 결혼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

		결혼생활만족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통제변인	성별 ¹⁾	-.03	-.04	-.04	-.05	-.02	-.09
	연령	.01	.02	.02	.03	.13	.11
	주관적 경제 수준	.27	.33***	.24	.39***	.28	.28**
	교육수준	.09	.14	.03	.05	.05	.06
	주관적 건강상태	.06	.10	.05	.07	.05	.05
가족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16	-.18*	-.14	-.16*
	경제문제 스트레스			-.07	-.08	-.10	-.14*
	건강및상실 스트레스			-.03	-.04	-.08	-.12
사회적지지 자원	비공식적지지 자원	가족지지				.22	.25**
		타인지				.11	.10
	공식적지지에 대한 인식					.01	.02
상수	2.97		4.23		3.21		
Adjusted R ²	.266		.371		.459		
F	12.80***		17.11***		17.07***		
dw	1.88		2.01		2.03		

주:1)남성=0, 여성=1

*p<.05, **p<.01, ***p<.001

하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의 기혼남녀는 향후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은 부부간의 애정과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의 불안정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대 기혼남녀를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 후 이에 대해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평균 3.11점(SD=.56)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9점(SD=.65),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0점(SD=.76),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요인 3.05점(SD=.91),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요인이 2.91점(SD=.65)의 순으로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권한경, 2011; 유주연, 1995). 사회적지지 자원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전체 평균은 3.23점($SD=.77$)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지지에서 가족지지 요인이 3.46점($SD=.91$), 타인지지 3.51점($SD=.70$)이었으며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은 2.94점($SD=.68$)으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공식적지지 중 가족지지 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공식적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지지 자원으로써 공식적 지지 자원의 유용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비공식적 지지인 가족지지가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3.21점($SD=.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상’과 ‘중’인 집단보다는 가족스트레스가 ‘하’인 집단의 결혼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5, p<.01$) 사회적지지 자원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가 ‘하’인 집단 보다는 ‘중’인 집단에서 그리고 ‘중’인 집단보다는 ‘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68, p<.001$). 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일상적 영역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였다(박성연·전춘애, 1996; 이정은·이영호, 2000). 사회적 지지 자원의 경우는 평균이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는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김리진·윤종희, 2000; 박주희, 2015; Cutrona, 1996).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사회적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 자원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년기 시기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취약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유형을 결혼생활만족도 및 독립변수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 가족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스트레스와 같이 경제적 요인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가족지와 같은 가족적 요인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가족관계의 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결혼생활의 질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고(유주연, 1995; 김리진·윤종희, 2000; 권한경, 2011; 박주희, 2014; Cutrona, 1996)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스트레스 등 경제적 요소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결혼과 직업을 통하여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유정, 2009). 또한 탈 자녀기로 자녀의 심리적·경제적 독립을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부모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감당해야 할 중년기 기혼남녀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부담을 크게 지각할 수 있으며

로 가족문제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적지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는 중년기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중년기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유용한 개입 방안이다. 그러나 중년기 남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감하는 범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센터를 포함한 가족을 지원하는 실천현장의 중년기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프로그램들의 홍보와 보급 측면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족관계 기능의 향상과 경제적 안정의 도모를 위한 노력은 중년기의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중년기 기혼남녀의 올바른 부부관계의 형성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돕는 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와 지속적인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년기의 배우자간의 정서적 관계 및 역할수행의 재적응을 돕는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그 내용이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간의 적극적인 양성평등적 역할 참여는 부부간의 상호역할 수행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어 결혼생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들의 적극적인 가족 돌봄과 가사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실천영역의 가족교육사업에 성인지적 관

점에서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결혼생활에 위기의 징후가 있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위기취약 가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함께 가족들의 실천적 개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넷째, 중년기는 노인부양과 자녀교육의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경제적 불안정성은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요청된다. 최근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동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제언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 빈곤층, 노년층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가 중년기의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정부와 기업은 중년층 세대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세대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가능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지자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어야겠다. 중년세대의 결혼위기는 다가올 노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중년층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사회 정책은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년기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중년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박주희, 2014). 따라서 중년기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부모역할을 되찾도록 돕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적지지 자원 측정도구는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조사대상의 인식을 토대로 측정 한 한계가 있다. 공식적지지 자원의 활용 정도를 정교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공식적지지 자원이 특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써의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사는 중년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표집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순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강인(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강정희·설연옥(2012). 중년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27-151.
- 4) 경기개발연구원(2015). 2015 자녀양육실태조사.
- 5) 고재홍·박영화(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6) 권한경(2011). 중년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1.
- 10)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11) 김미혜(2006).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13)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14) 김연숙·김지미(20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동남보건대학 학술저널, 19(2), 163-172.
- 15) 김유정(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 코오리엔테이션 모델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김재은(1983). 인간발달의 과정. 서울: 展望社.
- 17) 김효민(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9(1), 109-122.
- 19) 박미연(2008).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 지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20) 박봉길·전석균(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 58-90.
 - 21) 박성연·전춘애(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22) 박신아(2014). 직장-가정 자원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 여성노동자의 직업지위 차이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박윤숙·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24)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박지현(200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6) 박지현·김태현(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27) 박주희(2014).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및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41-56.
 - 28)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 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29)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신현주·전귀연(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195-227.
 - 31) 신혜섭(2006). 중년기 위기와 가족스트레스. 생활과학연구, 11, 84-90.
 - 32) 양병환(1999). 스트레스 연구. 서울: 하나의 학사.
 - 33) 양옥남(1995).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4) 오가실·박영주·오경옥·김정아·이숙자·김희순·정추자(1999).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80-789.
 - 35) 오명자(2007). 중년기 여성의 주부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유상미(2008).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문제해결 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7) 유주연(1995).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39) 이신숙·이경주(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1-13.
 - 40) 이영선(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1) 이영주(2010).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도와 노화불안.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이정은·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43) 이호신(2000). 결혼생활 만족에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 변인들.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44)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5) 전찬례(2006). 기독교 중년여성의 위기와 영성의 상관성 연구.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6)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7) 정계숙·유미숙·박수홍·최은실(2012). 자녀생애주기별 어머니의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경향. 아동학회지, 33(4), 69-89.
 - 48) 정민자(1983).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정선화(2012).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0) 정옥희(2011). 마음챙김과 사회적 지지가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1) 정원길(2001).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2)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53) 정현숙(1999). 가족연구의 발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54) 조경진(2011). 중년기 가계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공교육 지출 유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5) 조성희·박소영(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49-174.
 - 56)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 57) 지혜정(2003).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8) 박성호(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9) 박윤숙·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60) 최연배(2003).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인식이 중도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1) 최미영·이영희(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196-204.
 - 62) 최문임(2007). 중년기 여성의 성적 적응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3) 최애선(2001).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4)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5) 통계청(2014). 2014 혼인·이혼통계.
 - 66) 통계청(2014). 2014 고령자 통계.
 - 67) 한겨레신문(2014). 중년이여 나이를 사랑하라. 2014. 4. 6. 문화면.
 - 68) 한명숙(200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9) 허미화(2004).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0) 현경자(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60-100.
 - 71) 홍숙선(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72) 황인성(1998).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3) 황종귀(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25-840.
- 74) Burr, W.(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9-37.
- 75) Bradbury, T. N., Fincham, F. D. and Beach, S. R. H.(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76) Barnett, M. A.(2008). Economic disadvantage in complex family systems: Expansion of family stress models.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11(3), 145-162.
- 77) Borland, D. C.(1978). Research on male mid-life crisis. *Counseling Psychologist*, 6, 2-9.
- 78) Boss. P.(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 79) Cobb, R.,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1143.
- 80)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13(2), 99-125.
- 81) Culp, A. M., Clup, R. E., Noland, D., & Anderson, J. W.(2006).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care provision by mothers of adolescent mothers: Considerations to make when providing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8(6), 673-681.
- 82)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8(6), 673-681.
- 83) Cutrona,C.E.(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R. Pierce, B.R. Sarason, & I.G. Sarasons(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173-194.
- 84) Dunst, Trovett, C., & Deal, A.(1988). *Enabling and empowering familie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 85) Erickson, E. H.(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86) Folkman S. & Lazarus R.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Co. New York.
- 87) Glenn, N. D. and Weaver, C. N.(1981).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61-168.
- 88)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89) Hovey, J.(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exic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134-151.
- 90) Larson, R. W., Richards, M. H., & Perry-Jenkins, M.(1994). Divergent words: The daily emotional experience of mothers and fathers in domestic and public sphe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034-1046.

- 91)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92)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93) Park, S., Cho, S., & Moon, S.(2010).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Role of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 389-397.
- 94) Rollins, B.,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0-28.
- 95) Rosen-Grandon, J. R., Meyers, J. E., & Hattie, J. A.(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haracteristics, marital interaction processe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82(1), 58-68.
- 96) Sarason, I. G., Levine, H. M., Bashsm, R. B., & Sarason, B. R.(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 97) Spanier, G.(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8), 15-28.
- 98) Staudinger, U. M., & Bluck, S.(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ife-span theory. In Lachman, M.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99) Zainah, A. Z., Nasir, R., Ruzy, S. H., & Noraini, M. Y.(2012).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Asian Social Science*, 8(9), 46-49.

- 투 고 일 : 2015년 9월 28일
- 심 사 일 : 2015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22일